



보도자료

| | | | |
|------|----------------------|------|-----------------------|
| 보도일시 | 2009. 6. 15(월) 조간 | | |
| 배포일시 | 2009. 6. 12(금) 13:30 | 담당부서 |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팀 |
| 담당과장 | 윤정식 (2150-5450) | 담당자 | 김인희 사무관 (2150-5454) |

제목: 공무원의 창의적 노력으로 4,928억원 재정개선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9명에 예산성과금 3.3억원 지급 -

□ 기획재정부는 6.12(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이용걸 2차관)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9명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009년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179건 사례에서 2008년도에 지출이 절약되고, 수입이 늘어난 재정개선 효과는 총 4,928억원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17개 기관의 72건의 사례에 3.3억원으로 평가기준을 계량화하여 심사한 '07~08년의 평균(97건, 3.5억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회의를 주재한 이용걸차관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한 금번 성과금 지급 사례를 함께 공유하여 공무원들이 창의적·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함.

□ 한편, 2009도 예산성과금 심사는 지난 2월말 선거관리위원회 등 19개 기관에서 179건(재정개선효과 1조 4,137억원)을 신청받았으며,

- 각 사례에 대한 부처의 설명 청취, 조세·회계·건축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4개 평가요소에 대해 심사위원이 엄격히 평가하였음.

• 학계, 연구원, 회계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6명

<2009년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개요>

(단위 : 건, 백만원, 명)

| 부 처 | 지급 건수 | 심사 결과 | | 성과금 | 인원 |
|---------|-------|-------------|---------|-----|-----|
| | | 재정개선효과* | 지출절약 | | |
| 선거관리위원회 | 1 | 719 | - | 10 | 3 |
| 감사원 | 3 | 5,315 | 8,539 | 21 | 9 |
| 기획재정부 | 1 | - | 1,571 | 5 | 3 |
| 법무부 | 4 | 218 | 72,246 | 36 | 20 |
| 국방부 | 5 | 4,288 | 259 | 46 | 17 |
| 행정안전부 | 2 | 4,864 | - | 26 | 6 |
| 농수산식품부 | 4 | 2,540 | 8,487 | 16 | 16 |
| 지식경제부 | 4 | 827 | 1,718 | 8 | 9 |
| 보건복지가족부 | 1 | 329 | - | 1 | 1 |
| 국토해양부 | 11 | 45,159 | 313 | 40 | 41 |
| 초달청 | 1 | 23,700 | - | 5 | 2 |
| 통계청 | 2 | 718 | - | 6 | 6 |
| 방위사업청 | 4 | 32,084 | - | 12 | 27 |
| 경찰청 | 1 | 1,350 | - | 10 | 2 |
| 행복청 | 1 | 1,000 | - | 1 | 2 |
| 국세청 | 21 | 1,276 | 252,416 | 56 | 53 |
| 관세청 | 6 | 250 | 22,606 | 28 | 22 |
| 합 계 | 72 | 124,637 | 368,173 | 327 | 239 |
| | | 계 : 492,810 | | | |

* 예산성과금 신청 179건의 재정개선효과 합계임

□ 금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자체개발'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별첨 2> 2009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우수사례 설명자료

< 2009년 예산성과금 지급 우수사례(예시) >

(단위:백만원)

| 예산성과금 신청내용 | 재정개선 | 성과금 지급액 | 지급대상자 |
|--|-------|---------|----------------|
| ①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자체개발 ·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을 자체개발 하여 외국산 장비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국산 장비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신장계측, 국내 차량분석, CCTV 재연 프로그램 등의 기능개선 등으로 특허 2건 획득 및 2건 출원중 ⇒ p.7 | 3,654 | 25 | 행정안전부 이종의2명 |
| ② 선거공보 발송용 봉투 제작단가 절감 및 홍보 효과 제고 · 제지업체와 일괄 입찰함으로써 제작단가는 대폭 낮추고, 봉투품질은 향상시키면서 '투표유의사항 안내문' 등 홍보내용을 봉투 뒷면에 직접 인쇄하여 별도의 인쇄절차를 폐지하여 예산 절감 ⇒ p.12 | 719 | 10 | 선거관리위원회 이동규외2명 |
| ③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M&A 자문용역 국내 고정사업장 판정을 통한 세수증대 ·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직원들의 출입국 관리기록 및 출입통제시스템상의 출입 기록을 분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 ⇒ p.14 | 4,673 | 15 | 국세청 조병성의2명 |
| ④ 구축함 30MM 골키퍼 주유기모듈 재생정비 개선 · 주유기 모듈의 주요 고장원인인 부품(셀)을 개발하여 고가인 모듈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 불량 부품만 교체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예산 절감 ⇒ p.16 | 2,962 | 15 | 국방부 오경원의2명 |
| ⑤ 세계 최초 항공라이다 측량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본도 수정 · 국가기본도의 등고선 제작을 기존 항공사진에 의한 수작업에서 항공라이다 측량 및 등고선 자동처리로 변경하여 업무효율 향상 및 예산절감 ⇒ p.18 | 1,166 | 10 | 국토해양부 강인구의2명 |

(단위:백만원)

| 예산성과금 신청내용 | 재정개선 | 성과금 지급액 | 지급대상자 |
|---|-------|---------|------------|
| ⑥ 대테러용 다목적 전술카메라 자체 제작 및 보급 · 대테러작전에 활용되는 고가의 외국산 다목적 전술카메라보다 성능이 향상된 장비를 자체 제작하여 예산절감 ⇒ p.21 | 153 | 10 | 경찰청 서정주의1명 |
| ⑦ 북한산 모래 수입관련 운송비용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관세수입 증대 · 수입자별로 상이하게 신고하고 있던 북한산 모래 수입관련 운송비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그에 못미치는 업체에 대해 누락운임을 추가 징수 ⇒ p.24 | 2,599 | 10 | 관세청 차상두외3명 |
| ⑧ 과다환급된 석유수입부과금 환수를 통한 세수증대 · 정유사가 최근 5년간 나프타를 분해하여 나온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 ₂) 등을 용접용 등으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도 이를 환급대상으로 처리하여 과다 환급받고 있는 실태를 밝혀내어 환수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킴 ⇒ p.26 | 2,952 | 10 | 감사원 나윤준외5명 |
| ⑨ K-1전차 포수조준경 사통장치 군직정비 전환 · K1전차 포수조준경 사통장치류 외주정비 부품들에 대하여 자체정비 기술을 개발하여 예산 절감 ⇒ p.28 | 323 | 10 | 국방부 박유상의3명 |
| ⑩ 선박건조 보세공장 잉여물품 신규세입원 발굴 · 선박건조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 신고없이 반출되던 페드럼, 목재 등에 대한 과세 ⇒ p.30 | 1,249 | 10 | 관세청 한성일의3명 |

-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노력을 통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예산성과금 제도

- 제도 도입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98. 5)

□ 지급요건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된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 지급대상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예산낭비신고자

□ 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

| 비고 | 예산 절감의 경우 | | | 수입증대의 경우 |
|-------|-----------------|-------------|-------------|------------|
| | 정원감축 | 경상적 경비 | 주요 사업비 | |
| 지급 한도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절약된 경비의 50% | 절약된 경비의 10% | 수입증대액의 10% |

* 예산성과금은 타부처에 전파 가능한 경우 30% 가산 지급되나 1인당 39백만원이 한도

[붙임 2] 예산성과금 지급 우수사례 설명자료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자체개발

(행정안전부 이증 공업연구원 ☎ 02-2600-4891)

국내 환경에 부적합한 고가의 외국산 프로그램

2002년 강남구에 공공기관 방범용 CCTV가 5대가 설치된 이래 2008년까지 8,761대가 설치되었고, 2009년 7,131대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CCTV영상이 범죄수사 활용 및 법정증거물로 채택 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CCTV영상분석을 위하여 2008년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전담인력 배치 및 분석프로그램을 일부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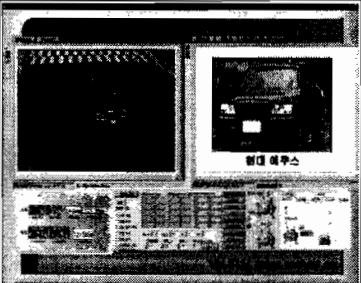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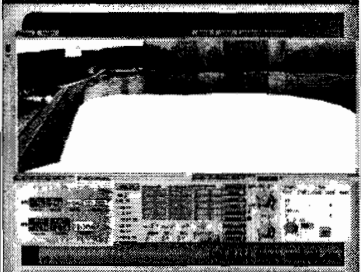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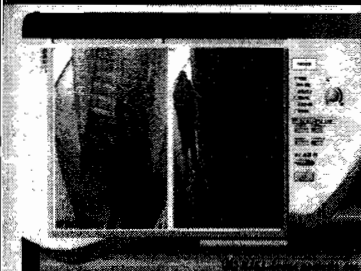
그러나 도입한 영상분석프로그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외국산 제품이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CCTV 실정에 맞지 않아 기능적·성능적 분석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자문 및 사용법에 대한 전문교육이 어렵고, 기능개선이 불가능하여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다시 구입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 CCTV 실정에 적합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수사기관의 CCTV영상분석 의뢰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외국산제품에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고, 특히 취득한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CCTV에 최적화된, 성능적으로 우수한 영상분석프로그램을 2008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영상분석프로그램은, 국내 차량번호판 규격을 고려한 차량번호판 판독프로그램, 해상도가 낮은 영상에서 범인의 신장 및 외형측정이 가능한 신장계측 및 CCTV 재연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기능적으로 외국산 제품 3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합한 것에 해당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군포여대생 살인(경기연쇄살인)사건, 중국불법어선관련 목포해경사망사건, 일산 어린이 성추행 미수사건, 금강산 관광객피격사건, 4모녀 살인사건 등 시급을 요하는 강력 사건 해결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활용(예시) >

| 사건명 | 활용방법 설명 | 활용예시 |
|-------------------------------|---|---|
| 군포여대생 살인사건 (2008.12) | 범행장소에서 근접한 CCTV카메라를 지나는 차량(1시간동안 100여대)에 대해 영상선명화 기능에 이용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 차량을 판별함. |  |
| 중국불법어선 관련 목포해경 사망사건 (2008.09) | 2.5m파도가 치는 선상에서 촬영되어 심하게 흔들리는 동영상을 1000여장의 프레임으로 나눠 기준위치를 맞추어 흔들림보정 기능(영상안정화)을 수행함으로써 목포해경을 가격한 중국인을 판독함. |  |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08.07) | 2000여 장의 관광객 사진을 영상 선명화 기능과 파노라마신 구성, 영상계측 기능을 이용하여 사건시간과 지점을 판독함. |  |
| 4모녀 살인사건 (2008.03) | 신장계측기능을 이용하여 이호성이 사건전후 아파트 입출입 및 사체유기 장면을 판독함. |  |

과학수사 분석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예산절감 및 특허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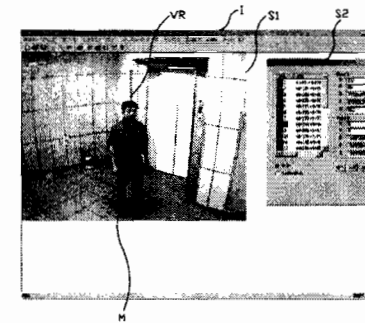
2008년 국과수에서 개발한 영상분석프로그램을 각 지방 경찰청 영상분석팀과 육군 수사단에 무상 배포하여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고가의 외국산 제품구매에 지출 될 약 36억의 국가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향후 주기적인 교육과 기능개선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수행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영상분석시스템과 관련한 2건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2건의 특허를 출원중에 있는 등 창의적인 업무성과를 거양하였다.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업연구원 이중 등 3명에게 2,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참고> 과학수사 영상증거물 분석시스템 특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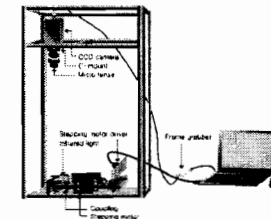
1. CCTV 영상내 3차원 가상자의 생성을 통한 범인 신장 계측장치 방법, 특허취득

보통 폐쇄회로티브이(CCTV)는 광각의 렌즈로 촬영하는 관계로 많은 렌즈왜곡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렌즈왜곡과 상관없이 촬영된 범인의 신장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디브알(Digital Video Recorder: DVR)시스템에서 사용되는 320 x 240픽셀의 해상도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크기로 몸 전체가 촬영되었을 때 기준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Cm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즉 범인의 발밑점을 선택하면 3차원의 가상의 자가 왜곡을 고려하여 생성되고 자의 눈금을 확인하면 쉽게 신장을 알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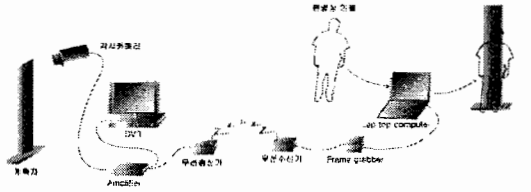
2. 테이프의 편집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장치, 특허취득

전자매체의 발전으로 일반인이 테이프를 편집하는 것이 쉬워졌고, 일반적으로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VHS테이프 방식의 VCR이 설치되어 있다. 편집은 일반적으로 삼각노이즈가 발생하나 콘트롤신호가 없는 부분에서의 검출이 곤란하여 영상 처리를 이용하여 테이프 편집을 자동 검출하는 장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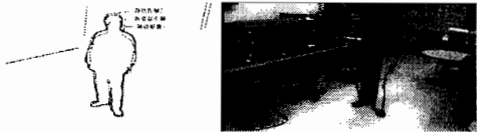


3. 현장 CCTV 시스템에 저장된 범인을 윤곽선 중첩을 통한 신장 및 외형측정 방법, 특허출원

DVR시스템은 생산회사마다 규격이 다르며 실제 캡취영역, 캡취 해상도 수평척도 인자(horizontal scale factor)이 각각 달라 실제 신장을 측정하려고 하는 인물의 위치와 실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영상의 위치와 크기가 상이하여 실제 인물의 위치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측정 인자를 교정 후 현장 CCTV 시스템에 저장된 범인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용의자의 재연을 통해서 외형 및 신장을 측정하는 장치로, 범인의 자세에 관계없이 신장을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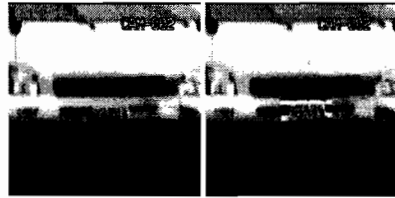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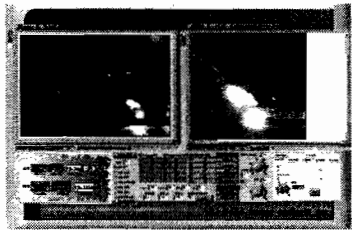
신장계측 하드웨어 구성도



원영상 인물과 재연영상의 인물 간 신장계측 오차의 측정

4. CCTV영상에 촬영된 차량 번호 선명화 방법, 특허출원

CCTV에 촬영된 차량의 번호판은 압축에 의한 화질저하, 차량의 움직임 및 광량 부족으로 초점 불일치 등으로 번호판의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영상 선명화 기법을 사용한 후, 국내 차량번호판 규격을 고려하여 번호판의 숫자가 인식이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임.



(가) 원 영상 (나) 선명화 보정 후

선거공보 봉투 제작방법 개선 및 홍보효과 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동규 서기관 ☎ 02-503-9677)

지역별 제작단가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예산낭비

전국단위 선거시 유권자가 가정에서 받아보는 선거공보봉투 등 제작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봉투와 인쇄료를 포함해서 평균 72원이 들고, 전국 2천만 가정으로 환산하면 14억원 정도인데, 제17대 대선에서 2회를 보냈으니 28억원이, 제18대 국선에서는 1회 14억원의 봉투제작 비용이 드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07년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면서 업무전반에 대해 관리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선거공보 봉투제작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봉투제작에는 그동안 법령에 따라 구시군선관위에서 각각 제작하였는데, 최고 115원에서 최저 34원까지(평균 72원) 단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소규모 발주, 지역별 물가 및 유통비용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봉투의 품질도 견고성만을 고려한 황색크라프트지 일색으로 미적감각이나 투표참여, 유권자 관심유도 등을 위한 홍보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제작방법 개선으로 719백만원 예산절감

선관위는 봉투제작 방법개선 방향을 첫째 개별입찰에서 일괄입찰로, 둘째 견고성과 미적감각을 고려한 새로운 특수봉투 규격을 만들고, 셋째 투표표찰 등 각종 안내문을 봉투에 직접 인쇄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 하고, 넷째 친환경인증서 획득, 실종아동찾기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설정 하였다.

이러한 업무개선 결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3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두었고, 200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예산절약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2009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와 7개 시도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4억원의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도개선에 따라 향후 실시 선거에서도 재정개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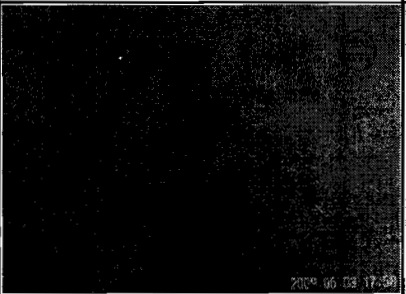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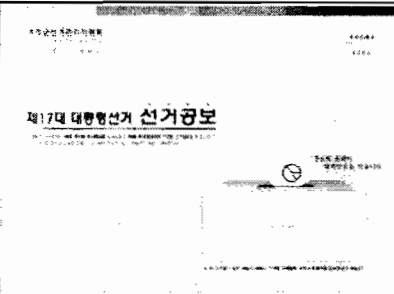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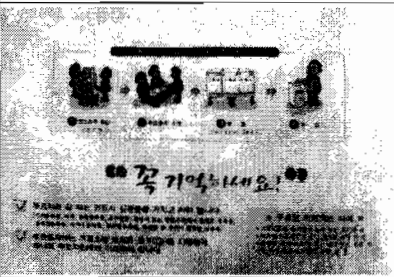
단순한 제도개선 이상의 관행타파를 위한 업무추진

단순히 생각하면 봉투제작 방법 변경을 위해서는 제작주체, 봉투기재사항 등을 개정(공직선거관리규칙)하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반발로 항의방문 및 음해성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결국 그동안 지속되어 온 기득권이나 관행의 개선여부는 순전히 업무담당자의 의지나 소신에 관한 문제였다.

우선, 지속적인 예산절약과 양질의 선거공보봉투 제작 및 적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모든 제작과정을 중앙선관위에서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추진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하였고, 유통과정의 비용절감을 위해 제지회사가 개발한 특수용지를 봉투제작 전문업체에서 직접 인쇄까지 일괄처리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업무감축이 가능했다.

비용절감과 아울러 봉투품질 향상과 디자인 개선으로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위원회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제작방법 변경에 따른 대비 】

| 중전 (단가 72원) | 변경 (단가 61원) |
|--|--|
|  |  |
|  |  |

국가의 친환경정책에 기여

예산절감 효과 외에도 선거공보용 특수용지는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환경 인증¹⁾을 받은 바 있으며, 2007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자원순환연대에서 주관한 녹색선거 정책토론회에서도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가기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국가 환경정책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당시 이동규 선거상황팀장 등 3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1) 재생용지를 30%이상 사용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친환경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임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통한 M&A 자문용역에 대한 국내 고정사업장(PE) 조사 과제

(국세청 조병성 세무주사보 ☎ 02-2076-5744)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M&A 자문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 없이 국부유출

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국내 기업의 기업합병 및 지분매각에 주간사로 참여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막대한 컨설팅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받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소수의 업무 전문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특성상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해외 투자은행들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정사업장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 기업들로부터 수취한 막대한 자문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내기업도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였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없이 막대한 수수료를 해외로 송금하고 있었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대한 국내 고정사업장(PE)을 조사하여 현금 징수

외국투자은행의 자문용역은 사무소나 공장 및 작업장, 건설공사 현장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의 신고가 없고, 외국법인의 사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기업별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과세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공된 용역의 확인이 곤란한 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들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발주한 국내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용역계약서, 명함, 송금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외국인인 용역 수행자의 이름 및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를 파악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를 찾는 역방향의 해결의 시도하였으나, M&A등을 추진한 국내기업의 태스크포스팀은 이미 해체되었고, 해외 투자은행의 사용인들의 명함에 이름이 일부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국내 관계사에 설치된 각 층에 설치된 보안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한 신분증 겸용 출입카드를 전세계 관계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출입카드 관리 전산 데이터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M&A 자문용역을 수

행하기 위하여 국내관계사에 방문한 이력을 확인하였고, 명함 및 계약서등을 통하여 수집된 외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의 확인과정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국내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충분한 과세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한 장소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수수료 380억원 대하여 법인세 등 47억원을 부과하고 현금 징수하여 국고 수입을 증대하였고, 세무조사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자진 신고납부(3회, 6억원)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외국계 투자은행의 공격적 조세회피 의도에 대하여 고정사업장 판정을 통하여 과세하고 불복 없이 현금징수 함으로써 유사 사례를 통한 외국법인의 조세회피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업종 조사 시 조사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조병성 등 3인에게 1,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기로 하였다.

구축함 30mm 골키퍼 주유기모듈 재생 정비 개선

(국방부 오경원 중위 ☎ 055-549-3491)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될 일을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떨까? 최첨단 무기체계가 장착된 최신예 구축함을 보유한 해군은 각종 장비의 수리·정비비용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데, 주요 구성품 중에서 일부 부품교체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품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골키퍼 주유기 모듈 내부의 다이아후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품 개발로 최상의 전비테세 완비

구축함에 장착된 근접방어무기체계 30mm 골키퍼는 분당 4,200발을 발사하며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켜 함정을 보호하는 첨단 무기체계이다. 골키퍼에는 7개의 포신이 달려있으며 이들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포를 발사한다. 고속 왕복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포신 회전부의 원활한 고속운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키퍼의 주요부품인 주유기 모듈이 지속적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유기 모듈 고장시 골키퍼의 운용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고장은 약 4년 주기로 발생한다.

【 근접방어 무기체계 '골키퍼' 】



고장난 주유기 모듈을 분해할 수 있는 특수공구를 자체개발하여 분해정비한 결과, 주유기 모듈 내부의 다이아후렘(특수섬유가 보강된 고무막)이 손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이아후렘만을 교체할 수 없어 모듈 전체를 교체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에 따라 다이아후렘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산화를 통해 모듈 교체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주유기모듈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최상의 골키퍼 전비태세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주유기 모듈 내부의 다이아후렘 개발 연구를 착수하였고, 다이아후렘 생산을 위한 독자적인 생산기술 확보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다이아후렘의 제작성형기술을 확보하여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고, 자체 생산한 다이아후렘의 성능시험에서 기존 제품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유기모듈 재생정비로 예산절감

주유기 모듈 고장의 주요 원인인 찢어진 다이아후렘을 자체 생산한 100만원 내외의 다이아후렘으로 교체할 경우 주유기 모듈 교체에 드는 비용절감 효과는 건당 3억 7천만원으로, 다이아후렘 자체 생산기술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총 8건, 29억 6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번 성과에 대해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기술연구소 중위 오경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세계 최초 항공레이저측량을 이용한 등고선 자동제작으로 국가기본도 수정

(국토해양부 강인구 시설사무관 ☎ 031-210-2720)

국가기본도에서 등고선제작비용이 45%, 정확도는 불만족

국가기본도²⁾는 최근 우리 생활의 편리함,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친근하게 사용되는 관광안내지도, 차량용 네비게이션지도, 포탈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위치정보는 국가기본도를 가공하여 제작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토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전 국토에 대한 국가기본도 제작 필요성을 인식했고, 「한·화 항공사진측량」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관련 장비와 기술 등을 도입하여 국가기본도를 연차적으로 수정·제작하였으며, 지난 '95년부터는 디지털화된 전자지도를 공공 및 민간 사용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국가기본도의 등고선은 항공사진상에서 지형의 높낮이를 측정하여 제작하고 있으나, 수목의 우거짐, 기술자의 숙련도, 사용기기의 성능에 따라 높이값에 대한 오차범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도로, 철도, 신도시 등의 SOC 계획·설계·시공시 토공량 산출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산지가 약 70%로서 국가기본도제작 시 등고선 제작에만 약 45%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예산과 공기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서 정확도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등고선의 자동제작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50년의 관행, 신기술도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으로 극복

등고선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최첨단 측량·지도제작 기술인 “항공레이저 측량기술에 의한 등고선제작”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연구한 결과, “예산절감과 정확도 향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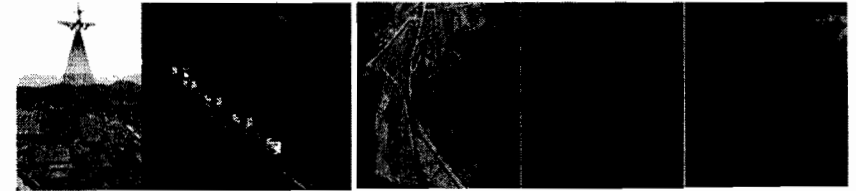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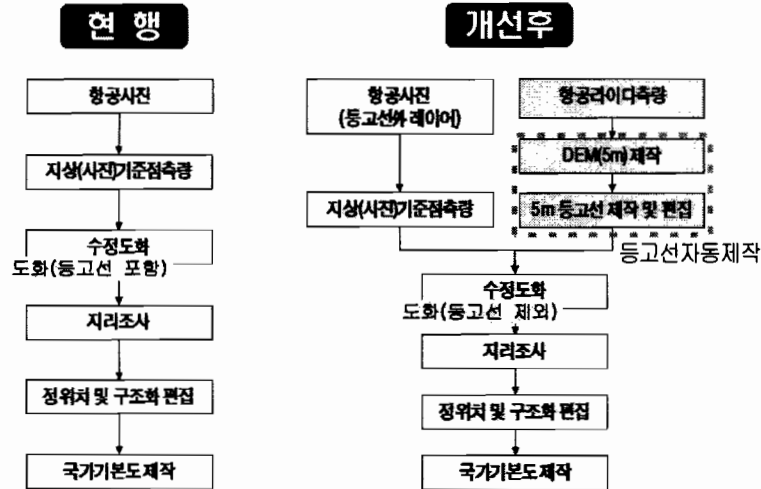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에 익숙한 관련업체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관련

2) 국가기본도 : 전국을 대상으로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써, 우리나라 모든 지도제작(관광지도, 내비게이션, 인터넷 포털의 지도 등)의 기준이 되는 지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기술도입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켰으며, 관련기술 발표(논문, 학술발표회 등), 홍보(국토지리정보 및 측량협회지 등) 활동, 매뉴얼 마련 등 신기술의 확산 및 제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자료 제공 등)과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방지 및 부가정보 생산에 따른 추가적 비용절감 등의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다.

【 국가기본도 제작방법 변경 전·후 】



<항공레이저측량도> <구축정보(디지털 영상, 수치표면, 수치표고)>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강인구사무관 등 3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기로 하였다.

5년간 125억 절감, 타 부처 데이터 활용으로 예산중복방지

항공레이저 측량은 항공기에 레이저를 장착하여 레이저를 지표면에 발사하고 그 반사파의 도달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여 지표면의 3차원 위치를 획득하는 측량기법으로서 이러한 기술을 전국적인 국가기본도제작 사업에 적용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

항공레이저에 의해 제작된 등고선은 기존 등고선에 비해 45% 이상의 정확도가 향상(기존 2.6m → 1.5m 향상)되었으며, 디지털 방식에 의한 자동 등고선 제작으로 약 30% 이상의 작업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는 '08년 26.4억 사업비를 14.7억으로 시행하여 약 12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5년간 약 125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항공레이저 측량을 통해 동시에 구축되는 디지털 영상, 수치표면³⁾, 수치표고⁴⁾ 자료의 동시 구축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08년 산림청에 수치표고

3) 수치표면(DSM: Digital Surface Model) : 지표면에 있는 지형·지물 및 수목의 높이 값을 점(point)이나 면으로 표현한 자료

4) 수치표고(DEM: Digital Elevation Model) : 순수한 지표면(ground)의 높이 값을 점(point)이나 면으로 표현한 자료

(경찰청 서정주 경장 ☎ 064-798-3363)

해외에서 구매한 전술카메라의 비효율성

경찰특공대 작전 중 인질극 및 테러 상황 등 발생시, 실내 상황의 정확한 사전 확인을 통해 작전 방향을 결정하므로 그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테러작전을 위해서는 인질범·테러범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실내 상황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대테러장비의 보급은 90% 이상이 해외장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전술카메라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1기당 2,400만원 상당의 미국산 실내관측용 카메라인 PCSS1을 3년간 13대를 구입하여 전국의 경찰특공대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PCSS1은 폴대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내부를 관측하고 이를 영상으로 전송하는 장비이다.

하지만 PCSS1은 고가인데 반하여 폴대의 확장범위가 낮고, 영상송신 능력이 낮아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기간이 장시간이 걸리는데다 그 비용 또한 고가에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낭비도 예견되었다.

그러나 PCSS1보다 성능이 좋고 실 작전에 유용한 장비를 해외에서 저가에 구입하기는 어려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저가의 자체개발을 통한 대폭적인 예산절감 효과

이에 LCD모니터, 안테나, 케이블, 배터리, 폴대, 카메라(적외선), 영상 입·출력 단자 등을 구매하여 훈련·일과 후, 휴일 등의 시간에 다목적 전술카메라 개발에 매달렸다. 7개월의 개발 끝에 시제품을 완성하여 이를 경찰청에서 시연하였고, 심의 끝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제품보다 성능 및 기능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전술카메라를 완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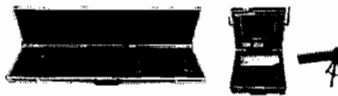
완제품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내부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거리 영상 수신 장비 세트를 이용하여 영상송신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작전요원의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팔부착형·안경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내부탐색 카메라 및 작전요원의 헬멧카메라로 포착한 영상을 지휘부와 작전요원 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PCSS1에 비하여 작전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었다. PCSS1은 1

기당 2,400만원이지만 다목적 전술카메라 1세트 제작비용은 400만원 가량으로 1기당 2,000만원 가량이 절약되었다. 대테러장비의 자체개발을 통하여 '08년까지 1억 6천만원 가량의 예산절감이 발생하였으며 다목적 전술카메라의 확대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많이 있고, 경찰특공대 이외에 군 등 내부관측용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감안했을 때 향후 예산절감이 수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창의적인 업무성과를 거양한 제주경찰특공대 경장 서정주 등 2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키로 하였다.

【 유사장비와의 비교분석 】

| 명칭 | 무선폴대형 적외선탐색경 (PCSS1) | 대테러 통합영상장비 (SECOND SIGHT NO.1) |
|------|---|--|
| 제조국 | 미 국 | 한 국 |
| 제작사 | Tactical Electronics | 제주경찰특공대 서정주 |
| 용도 | 대테러 작전시 건물내부 상황판단 및 재난 구조시 각종 통세에 무선폴대를 사용하여 정밀 감시가 가능한 휴대용 무선폴대형 적외선내부탐색경 | 테러 및 인질사건 등 강력사건 발생시, 폴대형 카메라와 작전요원 카메라를 이용 현장상황 확인 및 지휘부에 현장상황을 전파 |
| 장비구성 | 1. 무선폴대형 적외선 내부탐색경 2. 휴대용 무선비디오 수신기 3. 모니터(선택사양) | 1. 폴대형 내부 탐색 카메라(+적외선카메라) 2. 작전요원 헬멧 부착형 카메라 세트 3. 작전요원 (팔부착형, 안경형) 모니터 4. 원거리 영상 수신장비 세트 |
| 특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선 및 암호화 운용모드로 사용자가 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폴대를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가능 회전카메라헤드로 어떤 위치에서든지 적절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음 복잡한 벨트 팩 또는 외부케이블이 없이 사용 편리 2개의 신속한 연장장치로 230cm까지 연장가능 카메라가 고무 처리된 유연한 막대에 장착되어 있음 다양한 추가 라이트소스 사용가능 전원 : 3V 리튬 배터리 4개 사용 길이 : 59cm(접었을시) / 230cm(연장시) 중량 : 1.25 kg 방수 : 9m까지(흑백 및 칼라카메라) <p>< 휴대용 무선비디오수신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선택(휴대형, 손목형, 안경형) 내장형수신기로 본사의 모든 검색비디오 시스템 모니터 가능 연구전자회로모드로 RF 전송차단 흑백 또는 칼라이미지 표시 다수의 운용자가 여러 위치에서 모든 채널 관찰가능 3V 리튬배터리 사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선 다채널 보유 및 기존 보유 장비와 영상 송수신 호환가능 소형 카메라 및 적외선 카메라를 함께 교체사용 등 모듈화하여 어떤 카메라도 장착가능 자체 제작한 방열함(케이스)에 배터리를 포함한 장비 일체를 내장하여 사용편리 신속하게 늘이고 줄일 수 있으며 매우 가벼운 소재(카본)를 이용 400cm까지 연장가능 카메라의 각도는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 하며 손쉽게 탈부착이 용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거리 확대 및 지휘거리 무제한 가능 전원 : 리튬이온 배터리 내장(충전사용) 길이 : 91cm(접었을시) / 400cm(연장시) 중량 : 1.34 kg 방수 : Weatherproof <p>< 휴대용 무선영상수신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휘용, 손목형, 안경형 모두 포함 수신기 자체 녹화(채증), SD카드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즉시 확인가능 자체 배터리 내장으로 휴대용이 안테나 성능에 따라 수신을 향상 작전요원 및 수신부 등 여러 위치에서 수신가능 12V 리튬이온배터리 내장(충전사용) |
| 장비사진 |  |  |
| 가격 | 약 2400만원 | 약 400만원 |

북한산 수입 모래의 상습적 과세탈루 방지

(관세청 차상두 관세주사 ☎ 031-596-2011)

동일한 북한산 모래, 동일한 거리인데 신고운임이 제각각?

북한산 모래 반입은 서해안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골재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한 남포와 해주 앞바다에서 북한에 채취료를 주고 채취해 인천항 등지로 반입하는 북한산 모래는 수도권 레미콘 모래수요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래의 과세가격은 북한에 지급하는 모래의 채취료(약 1.6\$~2\$/m³)와 운송비의 합계로 신고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지역에서 채취해 오는 북한산모래의 주된 과세가격의 요인인 운임이 납세의무자에 따라 2,500원~7,000원/m³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에 나섰다.

저가신고의 원인은 운임 계산의 복잡성

원인분석 결과 운송방식이 다양하고 각 운송방식에 따라 신고할 운임이 달라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수입자는 적정운임을 산정할 수 없었다.

《북한산 모래의 운송형태》

| 배의 소유 구분 | 내 용 | 주요 운임구성 요소 | |
|----------|--------------|--------------------|---------------|
| 타인소유 | 기간용선 | 배를 일정기간(통상 연단위) 빌림 | 용선료, 인건비,유류대등 |
| | 항차용선 | 항차별로 배를 빌림 | " |
| | 일정운임 | m³당 일정금액을 지급 | 계약된 운임 |
| 자기소유 | 자기소유 선박으로 운행 | 감가상각비, 인건비,유류대등 | |

하나의 돌로 세 마리의 참새를 잡았다.

각 운송형태별 운송비용의 신고방식을 표준화하여 통관부서 및 수입업체에 홍보하여 업체별로 상이한 운송비용 신고행태를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운임신고시 시간이 절감되어 신고하는 수입자 검토하는 세관 모두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었고, 수입자의 무지로 상습적으로 탈루되던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기존에 적게 납부한 세금도 운임신고방식 표준화로 재계산하여 탈루되었던 세금 19억을 추가 징수하였다. 이는 과거 2년분의 수입분에 대한 수입증대액이 약 19억원임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수백억이 탈루될 뻔한 세금을 적정하게 징수하게 되었다.

운송형태별 운송비용 표준화 내용

■ 자가소유선박의 표준화 양식

| 월 | 항차 및 생산량 | | 선원인건비 | 유류대 | | 수리비 | 보험료 | 감가상각비 |
|----|----------|---------|-------------|-------------|------------|-------------|------------|------------|
| | 항차 | 생산량 | | B-A | 경유 | | | |
| 1월 | 11항차 | 34,133 | 23,768,093 | B-A | 72,742,728 | 4,289,466 | 352,130 | 11,639,833 |
| | | | | 경유 | 16,716,145 | 3,282,950 | 1,925,006 | |
| 계 | 83항차 | 145,081 | 160,199,168 | 385,909,068 | | 280,830,904 | 13,314,695 | 69,838,998 |
| 단가 | | 6,273 | 1,104 | 2,660 | | 1,936 | 92 | 481 |

■ 용선의 표준화 양식

| 월 | 항차 및 생산량 | | 용선료 | 유류대 | |
|----|----------|---------|-------------|-------------|------------|
| | 항차 | 생산량 | | B-A | 경유 |
| 1월 | 11항차 | 34,133 | 120,000,000 | B-A | 72,742,728 |
| | | | | 경유 | 16,716,145 |
| 계 | 83항차 | 145,081 | 760,000,000 | 385,909,068 | |
| 단가 | | 7,898 | 5,238 | 2,660 | |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해 안양세관 관세주사 차상두 등 4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 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감사원 라윤준 기술서기관 ☎ 02-2011-3322)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지식경제부(한국석유공사)에서는 원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현행 ㄹ당 14원)을 징수한 후, 석유제품(가솔린 등)을 수출하거나 공업용원료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유분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한 수출업자 등에게 환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에 대하여만 환급하되, 제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을 만드는 원유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유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의 경우 채집시설로 모아서 다시 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는 '부산물'로 간주해 이 부분 만큼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 원유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유사에서 환급대상이 아닌 연료가스에 대해서도 환급신청

그런데 GS칼텍스(주) 등 5개 정유사는 매년 7,184억 원(5개 정유사 합계)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만드는 원유분에 대해서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신청을 하여 지난 5년간 약 804억 원을 과다 환급받았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매년 약 160억 원의 세입증대 예상

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지난 5년간 과다 환급된 석유수입부과금 804억여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료가스 등 부산물을 만드는 원유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 관련 고시 개정 후 1년간 약 160억 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왔고, 앞으로 매년 약 160억 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된다.

그 외에 삼성비피(주) 등 5개 석유화학공업체가 2002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나프타를 분해하여 나온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등 계 25.7만 톤을 용접용 등으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도 이를 환급대상인 '석유화학공정에 연료로 사용하거나 손실'된 것으로 처리하여 과다환급 받은 29억여 원을 회수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만큼 세입증대를 가져왔다.

철저한 감사준비 등으로 세입증대 성과

이 건 사항은 정유사의 계속된 고도화처리시설(중유를 가솔린 등으로 재처리하는 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단위소요량(석유제품 1ℓ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유량)이 증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부족 등 이유로 한국석유공사 등 감독기관에서 환급신청의 적정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착안하였다.

그리고 감사팀이 수개월 간 석유·화학공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초빙 강의와 관련 전문서적 등을 탐독하는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정유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어렵게 얻은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기술서기관 라윤준 등 6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K1전차 포수조준경 사통장치 군직정비 전환

(국방부 박유상 무통군무주사 ☎ 011-587-8251)

군직 창정비 능력 미확보에 따른 외주업체 정비로 예산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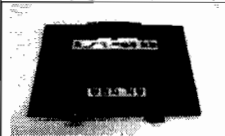
'86년도 국산 개발로 실전 배치된 우리군 주력 K1전차는 10여년간의 장기간 야전 사용으로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생개념의 창정비 시기가 도래되었다. 육군은 '93~'96년간 K1전차 전 구성품에 대해 장비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창정비에 필요한 정비기술, 교범, 시험장비, 특수공구 등을 개발하여 창정비 능력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포탑에 장착되어 목표물의 주·야간 관측 및 사거리 측정 등에 이용되는 중요 사통장치인 포수조준경은 전량 수입품목으로 군직 창정비 개발에서 제외되어 외주정비를 실시하였다. '01~'04년간 포수조준경 사통장치 파워조절기 등 10항목 221점에 대하여 외주정비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고 외주계약에 따른 정비기간도 평균 6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었다.

자체 연구팀 편성, 정비 기술개발 및 군직정비 전환으로 예산절감

이에 육군종합정비창은 포수조준경 사통장치 군직정비 자체 연구팀을 편성하여 정비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배선 연결을 추적하고 동작원리 연구끝에 시험장비를 개발하여 구성품간 운용시험 및 고장 추적 능력을 확보하였다.

<포수 조준경 군직정비 전환 연구 성과>

| | | | |
|---|---|---|---|
|  | |  | |
| 군직정비 전환 대상 품목(포수조준경) | | 시험장비 개발 (1종) | |
|  |  |  |  |
| 내부 전자회로카드 역설계(17종) | | 정비지침서 작성 / 수리부속 목록화 | |

또한 축적된 전자기술로 도면을 역설계하여 내부에 장착된 전자회로카드 전량을 정비 하였으며, 군직정비에 필요한 시험기 1종, 정비지침서 5종, 회로도면 역설계 17종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군직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군직정비 기술개발 성과로 '04~'07년간 포수조준경 파워조절기 등 10항목 195점에 대하여 군직정비를 실시한 결과 외주정비에 비하여 약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08년도에는 4항목 38 점을 군직정비하여 외주정비 대비 약 3억 2천만원을 절감하였고 정비기간도 6개월에서 2개월로 4개월 단축하였다.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육군종합정비창 무통군무주사 박유상 등 4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10 선박건조 보세공장 잉여물품 신규세입원 발굴

(관세청 한성일 사무관 ☎ 055-681-3429)

발상의 전환! 선박건조 후 남은 폐전선 등도 상품가치가 있어 매각을 하는 경우는 관세를 내야 한다.

거제에는 세계 굴지의 선박건조 보세공장인 D와 S사가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메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선박은 세계 최고의 건조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선봉으로 자리 매김한 품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얼핏 생각하면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세원(세금)이 잠자고 있었다.

보세공장이 설립된 이후 30여년 동안 일반적으로 선박은 철강제품이 주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고철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발상의 전환으로 나머지 잉여물품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6개월에 걸쳐 현장처리 과정을 살살히 실시하고 품목별 매각대상 등을 검토하여 그동안 전국에 산재한 선박건조 보세공장에서 103억원대의 폐전선, 폐스폴 등이 재활용 공장으로 매각되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12억 4천만원의 관세 등을 추징함과 동시에 매년 약 6~7억원의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과세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국세관에 배포하는 등 선박건조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것이다.

수많은 잉여물품중 어느 품목을 과세할 것인가? 이에 초점을 맞춰 6개월간 발로 댄 현장실사

보세공장에서의 관세부과는 외국에서 수입되어지는 원자재중 과세가 보류된 물품을 국내로 재수입할 때에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건조에는 185종의 외국물품과 125종의 내국물품이 혼용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산물(잉여물품) 전체가 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잉여물품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폐기물 수거장소에 모아 놓았다가 재활용 공장 등에 매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즉 과세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서 물품을 선별하고 선박 건조과정, 원재료별 투입량, 잉여물품 발생량, 유상매각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고철 이외 잉여물품인 폐전선 등 10종 물품에 대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량을 산정하는데 6개월이라는 많은 시일이 걸렸으며 특히 영업비밀 사항이라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업체를 설득시키며 지금까지 30년간의 관행을 당연시하며 반발하는 업체를 이해시키는데 애로가 많았으나 집념어린 세관직원의 끈질김으로 관세를 징수하게 된 것이며 고철의 잉여물품에 대한 징수대상 여부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게 되었다.

거제 보세공장에서 시작하여 전국 보세공장으로 확산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과세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거제세관의 경험을 담아 잉여물품 처리절차도, 잉여물품 관리방법, 관련법령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부산세관, 울산세관, 목포세관 등에 통보를 하여 전국세관에서 12억 4천만원을 추징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비과세로 고착화될 뻔한 선례답습형 업무처리 관행을 타파하여 매년 6~7억원의 관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해 거제세관 사무관 한성일 등 4인에게 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과세대상 잉여물품 현장>

□ 폐전선



□ 페스플 및 페페인트 캔

